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2009년도 표어

섬겨야 합니다 (갈 5:13, 전 11:1)

행동지침

- 1. 민족 복음화의 산실되어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실현하자
- 2. 신앙의 대잇기 모범을 보이자
- 3. 교육에 대한 국가적 비전을 제시하자

†발행인: 이 중 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시편강해

핍박과 환난 중에서 구원하는 말씀 (시편 119:17-32)

본문에서 말하는 핍박과 환난은 ‘의를 위하여’ 받는 핍박과 환란을 말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사는 자가 받는 축복을 먼저 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쬐을 때부터 따르기 시작했다고 말하며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받는 핍박과 환난에 대해 말씀합니다.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Jong-yun Lee (Senior Pastor)

1. 이제는 의를 위하여 핍박과 환난이 온다

시인은 핍박과 환난을 다음의 네 가지로 말씀합니다.

- ① 소외됨-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요15:19-20)고 말씀하십니다.
 - ② 비방-비방은 하나님의 법을 신실하게 지키므로 오는 것입니다.
 - ③ 굴욕 또는 수치-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심을 할 때 성도는 세상에서 굴욕과 수치를 당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 ④ 슬픔-시인은 주님의 도를 따라 행하며 살지만 세상에서는 오히려 거절과 비난을 당하므로 슬퍼합니다.
- 그러나 성도는 어떠한 경우라도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2.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시인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으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자력으로 이것을 할 수 없음을 알기에 다음과 같은 기도를 합니다.

- ① 내 눈을 여소서(18-19절)
- ②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26절)
- ③ 나에게서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27절)
- ④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29절)

3. 경주자로 달려라

하나님은 우리의 선생님이시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고, 즐겨워해야 합니다. 시인은 3가지 동사를 통해 경건하게 살려면 바로 선택하고, 바로 잡고, 달려가라고 합니다.

- ① 우리는 바른 길을 선택해야 한다(30절)
- ② 우리는 하나님의 증거들에 매달려야 한다(31절)
- ③ 우리는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야 한다(32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비 된 면류관을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의를 위하여 당하는 핍박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God's word delivers from persecution and affliction (Psalm 119:17-32)

The persecution and affliction of this psalm refer to Christians who are persecuted and afflicted “for righteousness.” The psalmist explains that God’s blessings are for those who live in accordance with God’s law. Then, he describes how they had started to follow God’s law in their youth, but now face persecution and affliction.

1. Our present persecutions and afflictions come to us because of righteousnes.

The psalmist characterizes persecution and affliction in four points:

- ① Alienation – Jesus says, “As you do not belong to the world, the world hates you.” (John 15:19-20)
- ② Slander – Slander is given in response to our zeal for God and His law.
- ③ Insult or shame – When Christians decide to live according to God’s word, they may have occasions when they are insulted or put to shame.
- ④ Sorrow – The psalmist acts and lives in accordance with God’s law, but he is sorrowful because he has been refused by the world and wrongfully blamed.

In every case, we as Christians must pray, “Keep me true to Your word.”

2. Live according to God's word!

The psalmist studied God’s word and wanted to live according to it. However, because he knew that he could not fulfill God’s purpose for himself, he prayed in the following way:

- ① Open my eyes (vv. 18-19)!
- ② Teach me Your decrees (v. 26)!
- ③ Let me understand the teaching of Your precepts (v. 27)!
- ④ Keep me from deceitful ways (v. 29)!

3. Pursue His words aggressively!

God is our teacher. Therefore, we must love and respect Him, as well as meditate and enjoy His word.

To live a life of devotion, we must follow His word with three verbs.

- ① We must choose the way of truth correctly (v. 30).
- ② We must hold fast to His statutes (v. 31).
- ③ We must run in the path of His commands (v. 32).

My beloved congregation!

The Apostle Paul confessed that he had fought the good fight, run the race in the path of His commands, and kept the faith for the crown prepared for him. Just as he yearned for Jesus’ coming, not being afraid of persecution and affliction because of his righteousness, and living in accordance with God’s word, I sincerely pray that all of us will be God’s faithful people in the name of Jesus Christ!

■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 TV : 케이블 CH 42(CTS,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 K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 기독교 TV (http://www.cts.tv) · 기독교 방송 (http://www.cbs.co.kr) · 중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여름수련회 금주에도 계속 이어져

중등부 7/27(월)-29일(수) 북한산 기화 수련원
에바다부 7/29(수)-31일(금) 태농원
영어예배부 7/31(금)-8.1(토) 청용회관

여름수련회가 금주에도 계속된다. 이번 주에는 중등부, 에바다부, 영어예배부의 여름수련회가 열린다.

중등부는 7/27(월)-29일(수)까지 북한산 기화 수련원에서 이종윤 한상은 박종민 목사를 강사로 '예수님의 섬김'을 주제로, 에바다부는 7/29(수)-31일(금)까지 태농원(강원도 태백)에서 임규현 목사를 강사로 '섬겨야 합니다'를

주제로, 영어예배부는 7/31(금)-8.1(토)까지 청용회관에서 Joshua Cho 목사를 강사로 'Dependence on God'을 주제로 각각 열린다.

계속되는 서울교회 여름수련회를 통해 참가하는 모든 이들이 예수님과 깊은 만남을 통해 은혜 받고 섬기는 이들로 거듭나도록 기도한다.

인도 나가나할리 교회 설립

- 우상식(김정옥) 선교사 -

우리교회에서 인도로 파송한 우상식(김정옥) 선교사는 지난 7월19일 인도의 나가나할리 교회를 개척하고 첫 예배를 드렸다.

이 교회에서 김정옥 선교사는 유치원을 개원하여 복음을 전파하게 된다. 힌두마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실히 증거되도록 온 교회는 기도를 해야 한다. (하단 참조)

더욱 가까워진 아가페타운 경춘고속도로 개통 - 화도 I.C. 로



지난 7월15일 '경춘고속도로'가 개통되어 교회에서 아가페타운까지 50분 거리로 더욱 가까워졌다.

경춘고속도로로 아가페타운에 가려면 미사리소재 강일IC에서 진입하여 화도IC로 나와 신정평대교 방향으로 운행하다 우회전하면 경춘국도를 만나게 된다.

또 제 2 외곽순환도로가 개통되면 청평IC가 생기게 된다.

태신자를 위해 기도합시다

새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해 우리는 기도하며 태신자를 잉태하였다.

태신자는 () 안에 있는 명단이다.

김순영(임경애) 김명심(김재형) 김진 김호진 박유희(심영무 정봉순) 임광우(김명신) 이현숙(박혜림 현주미) 유명석(김철호) 김혜연(박정훈 최인옥) 김혜식(김현숙 김현일 송민호 최명자) 최용걸(권용홍 노일영 하길래) 김희진(김명우 김병찬 김부영 김은영 김종만 장영애) 김숙자(유진하 장현순) 김규희(최현복) 오세창(김난하 윤재명 임희정) 김진달(권경렬) 김복순(장순심 최소진 최정석) 구귀순(박건희 함윤정) 강애자(이진배 정정호 최은경) 허경화(김윤지) 전용순(박성현 최완주 최윤서 최은주 최익호) 송옥혜(송경서 송원봉 이영희) 박이선(김경인 김경희 유기숙 조설화 황인옥) 김홍두(김경배 김갑운 김인순 김창영 김홍덕 김홍복 김홍숙 박용희 박정애 박정희 박종인 박주성 박찬희 이용자) 장동은(홍성주(김태형 김희락 박남식 이흥세 정재근) 최중시(오의환 최돈학 최범순) 여현진(이연식 임은순 전순자 조영민 황진순) 송혜숙(박정희) 조정옥(홍동기) 정애신(김순옥 방계순 함익수) 이현수(이덕수 이우영) 이민화(마정숙 우정자 이병웅) 윤종현(구상분 구장분 김현아 신연옥 윤선미 이희옥 장윤정) 유경은(박지윤) 송순옥(곽문실 윤정병 정남규 정도현 정준호 정지숙) 노문환(노중환) 홍정란(홍순오) 최근자(김정숙) 임상현(강상여 김종열 안미정 황대운) 이정연(신정선) 이수자(김택진 류창숙 이명희 이지원 정장자 최영희) 유경희(유정석 윤재기 정주연) 송성식(송덕순 이영석) 이창현(진애경 황신우 박정섭(김갑인 김풍철 이복근) 박우주(박종수 이동열 이동원 이원표 이춘자 장준영) 김진환(이주원) 김소진(김길태 김형석) 김광신(임정택) 최향분(이미란 이혜련 하기도 하수진 하지원) 정정심(김현기) 이영임(강희복) 유기룡,우원환(윤호진 조숙녀) 오혜경(방신안 이윤정) 양미정(양근배 양미선) 김혜영(김철호 이영순 조현숙) 김수정(박선진) 김병호(김영희) 김동진(박병권 박재완 박재우 이재정) 곽미숙(김재범 최정윤) 고선옥(전영신) 최현인(김도형) 안선희(박경란) 김현영(김상필 김창열) 김진희(고건) 곽태순(이명순 정기자) 김희순(이숙경) 이미연(정동섭) 백도환(김을옥 김태형 이소영) 노재현(이희 환규현)

편지왔어요 - 인도

나가나할리(NAGANAHALLI)에 교회를 세우며...

우상식(김정옥) 선교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존경하는 이종윤 목사님과 서울교회 그리고 당회원과 은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총과 위임목사님과 성도들의 기도로 건강하게 은혜 가운데 생활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며 보내주시는 정성어린 선교비는 잘 받아 선용하고 있으며 저희들도 위임목사님과 서울교회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마을의 가정교회를 돌며 사역을 감당하였으며 선인 선교사님과의 협력사역 그리고 인도 현지 목회자와 협력을 하였습니다.

이제는 저희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김정옥 선교사와 함께 여러 날을 사역할 장소를 물색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나할리(NAGANAHALLI)지역을 정하였고 집을 빌려 교회를 시작하여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인도 현지 주민들과 함께

주일예배를 드리는 중에 마을 힌두교도가 찾아와 방해하려했지만 저희와 동역하는 인도 Stephan 목사의 중재로 무사히 예배를 마쳤습니다. 인도 Stephan 목사는 저희가 오랫동안 동역자를 위해 기도하여 만난 신실한 목사입니다. 온 가족이 힌두

교도 가정인데 이 분이 먼저 기독교로 개종하여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교회를 시작으로 김정옥 선교사는 유치원을 통하여 어린이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정한 곳은 힌두교도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며, 바로 옆은 무슬림(회교도)들이 사는 마을입니다. 더욱 기도의 후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여름철 여러 가지 행사로 이번 여름도 매우 분주하게 목회사역을 감당하시리라 사료되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 속에 모든 행사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늘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인도에서 우상식 김정옥 선교사 올림

<기도제목>

1. 교회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2. 고아원 설립을 위해서
3. 유치원, 학교(어린이사역)를 위해서
4. 선교센터 건립(Social work)을 위해서
5. 인도의 평등한 사회(카스트 제도의 붕괴)를 위해서
6. 테러와 박해가 소멸될 수 있도록
7. 인도 땅의 복음화와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7개 교회연합 세례식

반갑습니다

모퉁이돌이 되십시오!

“오래 오래 건강하셔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종운 목사님은 지난 20일(월), 그간 부교역자로 우리교회를 섬기던 여덟분의 목사님들의 예방을 받고 환담을 나누었다. 이 날 방문하신 목사님들은 이 목사님 목양실에서 잠시 인사를 나누고 추억이 담긴 서울교회를 둘러본 후, 베델 하우스로 자리를 옮겨 오찬을 나누며 화기애애한 시간을 가졌다.

이 날 방문한 목사님 여덟 분은 짧게는 3년, 길게는 10년 동안 이 목사님 아래서 목회 레지던트 섭을 받고 이제 어엿이 한 교회의 담임으로 시무하고 있다. 이 목사님은 이들을 흐뭇하게 바라보시며 한국교회를 위해 가야 할 목회의 방향, 세계복음화를 위해 어떻게 힘을 것인지에 대한 조언의 말씀을 아끼지 않으셨다.

이 목사님은 경건회에서 에베소서 2:20-22의 말씀을 통해 목회자는 예수님과 같이 필요불가결한 모퉁이 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하며 교회를 향해서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희생의 제물이 되고, 성도를 향해서는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되어야 한다고 하셨다.

모임을 주관한 김명현 목사님(림교회 담임)은 이 모임은 역대 부 목사님들의 흠커밍데이의 성격이라고 하시며 목사 안수를 받고 처음 부임한 서울교회는 남다른 감회가 있



는 곳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곳에서 뵈인 목사님은 목회자의 표상이었고 자신의 유일한 멘토 라고 했다. 자신은 이



최병호 목사

목사님에게서 스스로 정결케 하는 자정 목회, 자립 목회를 배웠으며 독일에서 10년,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 목회를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 목사님의 목회 방법을 반복적으로 재연할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

최병호 목사님, 장용휘 목사님, 김정현 목사님 등 동기 목사님과 함께 찾으신 권상석 목사님은 재임 당시는 힘들었지만 말씀을 연구하시는 이 목사님의 한결같은 자세를 곁에서 바라보면서, 또 치밀한 행정과 교회 시스템 등 철저하게 받은 훈련이 목회자로서의 큰 자산이며 행사를 계획할 때 흑사라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럴 때 이 목사님은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곤 했다며 어느 날 보니 자신이 이 목사님을 꼭 빼닮은 목회를 하고 있더라고 했다.



장용휘 목사

또 장용휘 목사님은 재임시절 교구, 부서, 또 순례자 지도를 하며 때로는 이 목사님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기도 했지만 늘 냉정해 보이는 목사님이 서운한 적도 있었으나 돌이켜 생각해 보니 교회 질서를 세워나



민영수 목사

가기 위해 지도자로서 품위와 냉정을 잃지 않아야 할 부득이함, 그래서 외로웠을 이 목사님을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노라고 했다.

온양 지역에서 왕성한 목회 활동을 하시던 박귀환 목사님(동천교회

담임)은 지난 번 목사 위임식 때 서울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이종운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 주셔서 본인은 물론 본 교회 교인들이 큰 힘을 얻었다고 하며 오늘 9월에 있는 입당예배 때도 설교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목사님은 오후에 목회자 세미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목회 차원에서 이를 흔쾌히 수락



박귀환 목사

하셨다.

누구보다 오랜 기간 이 목사님을 모신 이성득 목사님(청주 동산교회 담임)은 아직 한국교회를 위해 할 일이 많으신 이 목사님이 곧 은퇴를 하신다니 참으로 아쉽지만 더욱 건강하셔서 한국교회의 등대 역할을 해주시고, 세계복음화를 위해 더욱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렸다.

모임을 마치며 이종운 목사님은 총회표준주석편찬위원장으로 신약부분의 집필을 검독해야 하는 일을 2012년까지 해서 표준주석발간을 교단에 바치는 마지막 봉사라고 생각한다고 하시며 이제는 일선에 있는 여러분들이 한국교회의 신화를 바르게 이끌고 나가야 할 것이고 어느 지역에서든지 장로교 연합과 일치 위해 힘쓰라고 하시며, 부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의 종이 되어 목양지를 풍요롭게 가꾸라는 당부 말씀을 하셨다.

허숙 권사(편집부)



여름수련회 후기

성김의 대학부

장지은(대학부)

저희 대학부는 7월 15일(수)부터 7월 18일(토)까지 3박4일간 여름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수련회는 임원단의 준비가 너무 미흡했기에 걱정이 많은 가운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겼고, 놀랍게도 수련회의 모든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3박4일간의 수련회동안 제일 큰 걱정이었던 날씨는 최적이었고, 모든 것들은 부족함이 없이 채워졌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직접 체험함이 너무나도 놀라웠고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아침 Q.T와 G.B.S 시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고 공동체 훈련을 통하여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성극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알게 하셨습니다. 또한 목사님의 말씀으로 더욱 강건해지며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저희가 되게 하셨습니다. 황광 목사님의 인도로 진행된 기도회는 수련회 중 가장 뜨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밤에 이뤄진 십자가에 죄를 못 박는 시간은 저의 모든 죄를 진심으로 고백하고 회개하게 하였고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 그 큰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참 사랑을 배웠고, 대학부 지체들은 예수님의 사랑

으로 교회를 더욱 열심히 섬기자고 다짐했습니다. 이 수련회를 통해 받은 사랑과 섬김으로 더욱 뜨겁게 부흥되는 대학부가 기대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으신가요? 섬김의 대학부로 오세요~ 대학부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English Ministry Retreat

Dependence on God

Rev. Joshua Cho



The elders explained that they needed a king, because Samuel was old and his sons were corrupt.
Sin has a subtle way of explaining away rejection so it makes sense, even to the point of self-delusion.
*Don't let yourself reason yourself into sin... Don't reason yourself... Don't let yourself get away with...
*How do you know you're not doing what to do and just labeling it God's will?

Dependence on God, is really about humility. During this retreat, we want to practice weakening pride and cultivating humility by perceiving ourselves as dependent and acting out our dependence before God in prayer.

I am also excited about the fact that this retreat will be our official second retreat of our

I am delighted to introduce our English ministry's summer retreat for 2009. Our theme for this year will be "Dependence on God." The idea for this theme came from my personal meditation as I reflected on the meaning of humility this past year. Humility is a difficult thing

to grasp, especially since the moment you think you are being humble, you are not! Of course, what makes it even more difficult are the inaccurate conceptions of humility floating around in our head as deflecting compliments, being self-deprecating about our accomplishments, or physically bowing low as we meet people at church.

While these might be possible outer expressions of humility, true humility, if I might offer a definition, is really a proper perception of ourselves before God. And what would be a proper perception of ourselves? To see ourselves as totally and completely dependent on God. On the flipside, to see ourselves as independent would be the definition of pride and would be demonstrating our blindness to the fact that God has created us and continues to uphold us in our very existence. So then, the theme,

ministry's history. At last year's retreat, we were blessed with a schedule packed with intense teaching about the "Community of Peace." In shifting gears, we wanted to continue intense teaching, but with some guided, individual time for prayer and reflection. This would be a time for each person to come before God and tackle his or her own issues of pride, and to begin applying all that we had learned up to that point. This is important, because we often walk away from a retreat loaded with information, but with very little practice on applying what we learned and with very little actual time for prayer. We hope that this retreat will be different.

While our retreat will be mainly focused on English-speakers, we want to welcome anyone who is interested in spending quality time with God and developing humility!

특별찬양

오늘 찬양예배의 특별찬양은 홍콩의 임벨리시먼트 (emBellishment) 핸드벨 앙상블 초청으로 들려진다. 2004년 Kevin Mazimas ko 씨에 의해 창단되어 홍콩, 싱가포르, 일본 등 아시아 지역과 미주 지역에서 활발한 연주 활동을 하고 있다. 우리 교회의 그레이스 핸드벨과 돈독한 관계에 있는 이 팀은 보다 전문적인 예술성과 깊이 있는 연주 기량을 통하여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게 될 것이다.

오늘은 'O Lord Most Holy' 외에 네 곡으로 찬양 드린다. 지휘는 Kevin Mazimas ko가 담당한다.

대치역에 우산 200개 기증

우리교회 전도위원회(위원장 홍성주 장로)는 7월 19일(주)오후2시 우리교회 자매기관인 대치역(역장 홍건주)에 우산 200개를 기증하였다.



등정

- 이종윤 목사는 27일(월) 한국기독교학술원 제6회 학술상 시상식에서 천거사를 한다. 30일(목) 한국로잔위원회 임원회를 소집한다.
- 12교구 이갑진 장로 박우주 권사(7/24-8/12 캄보디아 군선교(수방사, 특전여단) 및 서울교회 단기선교로 출국
- 이사: 10교구 서창원 집사 이기숙 집사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신안 인스빌 101-1102호
- 개업: 12교구 홍성민 집사 경기도 광주시 컴퓨터 수리 및 핸드폰 매장 개업 031-763-1102
- 교역자 휴가: 이규정 목사 7월20일-7월25일(대행: 서명철 목사) 서명철 목사 7월27일-8월1일(대행: 이규정 목사)
- 주간식당 봉사: 마리아전도회 (7월26일) 에스더전도회(8월2일)
- 금주의 식사: 양춘경 집사 이민숙 권사 가정(공정신속 감사하며)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일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30분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중등부 여름수련회 초대이 글

하나님의 동역자로...

박민숙 집사(중등부 교사)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학생들을 양육하고 있는 저희 중등부에서는 7월 27일(월) ~ 7월 29일(수) 까지 2박 3일 동안 "예수님의 섬김"이라는 주제로 2009년 여름수련회를 갖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단지 예수님의 섬김을 탐구하는 것을 뛰어넘어 우리 학생들을 깨워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으려는 큰 목표 아래 복음의 실천적 증인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제자로서의 섬김의 리더십을 배우게 하고자 합니다.

수련회를 기도로 준비하며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오실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청소년기에 시간과 정성을 다해 습득하고 추구해야 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때와 장소를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때에 어디에 있느냐가 한 사람의 인생에 큰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큰 그림을 놓고 본다면 이 여름방학에 여러분들이 수련회장에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믿습니다.

짧은 2박 3일간의 일정이지만 성령님께서 홀로 주관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여러분은 인생 중 가장 의미 있고 소중한 만남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할 일은 마음 문을 활짝 여는 것입니다. 그 이후의 일은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미래를 어떻게 붙잡아 주실 지 기대하며 기다리시면 됩니다.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예수님을 닮아 섬기는 자 되게 하소서.
2. 여름 수련회 은혜롭게 준비되도록
3. 아가페타운 건설 공사 위하여
4. 공의와 질서가 회복된 사회 이루고 북한의 전쟁위협은 사라지도록

교회오시는 길

